

국립심뇌혈관센터 조속 설립을 위한 장성군민 총력대응 선언문

전남의 작은 농촌 도시 장성은 국가발전계획으로부터의 소외와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장장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전체 군민과 공직자가 합심하여 ‘국립심뇌혈관센터’ 유치에 모든 자원과 노력을 쏟아부었다.

우리 장성군은 2007년부터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광주·전남 지역에 ‘국립심뇌혈관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충북 오송 및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과 함께 ‘의료삼각벨트’를 형성함으로써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대의적 당위성까지 견비하여 여러 관계부처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국립심뇌혈관센터 유치에 대한 장성군민의 염원은, 군민 스스로 1만명 서명운동을 추진할 만큼 간절한 것이었다.

장성인의 수년에 걸친 각고의 노력에 전남도민과 광주광역시민도 힘을 합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깊은 공감을 끌어내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을 광주·전남 상생 공약으로 채택한데 이어 문재인 정부 1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기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지난해 실시설계와 부지매입을 위한 2021년 정부예산 44억원을 확보함으로써, 5만 장성군민의 14년간 염원이 실현되는 감격을 자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은 질병관리청은 조직확대를 핑계삼아 202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예산 44억원 전액 불용’이라는 방침을 내놓았고, 이는 340만 전남도민과 광주시민, 특히! 14년간 국립심뇌혈관센터 유치를 위해 쉽 없이 달려온 5만 장성 군민의 염원을 철저히 외면하는 기만 행위에 다름없다.

지역의 사활을 걸고 ‘국립심뇌혈관센터’ 유치를 위해 14년간 부단한 노력을 이어온 우리 장성군민들은, 작금의 사태에 좌절감을 넘어 비분강개하는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

이에 우리 장성군민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약속의 존엄함을 깨닫고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공약을 속히! 이행하라!

둘째, 질병관리청은 국민을 기만하는 소극행정 방침을 철회하고 이미 확보한 44억원 예산을 연내에 신속하게 집행하는 등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우리 장성군은 전라남도과 광주광역시 등 유관기관과 연대하여 ‘광주연구개발특구에 국립심뇌혈관센터 조속 설립’이라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총력을 다해 끝까지 대응할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2021. 11. 18.

장성군수 유 두 석